

연중 제30주일

기도서 464 면(A해)
 제1독서 : 출애 22, 20-26
 제2독서 : 1테살 1, 5C-10
 복음 : 마태 22, 34-40

숲정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홍보국
 인쇄관 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론



사랑

이 상 섭 신부

몇달 전 폭우로 서울에 많은 수재민이 생겼다. 많은 사람들이 연례행사처럼 너도 나도 신문지상 1면에 떠들썩하게 명함을 내 놓았지만, 사랑을 조용히 실천한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 서울 어느 본당 신자들은 판자집 같은 성전을 새 성전으로 짓기 위하여 몇 년 전부터 정성 들여 모아 온 신축 헌금을 모조리 이웃 수재민을 돕기 위하여 사용했다. 그들의 이 같은 사랑의 실천 뒤에는 남 모르는 크나 큰 희생과 용기와 결단이 있었을 것이다.

며칠 전 T.V에 '레 미제라블'이 방영되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장발잔의 이야기다. 빵을 훔친 죄로 19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하고 자유의 몸이 되어 나온 장발잔은 세상을 잔악하다고 느낀다. 과거에 죄수였다는 핑계를 대고 아무도 배고픈 그에게 빵과 잠자리를 주지 않았지만, 주교님만은 그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준다. 그런데도 장발잔은 주교님의 은수지와 은것가락을 훔쳐가다가 경관에게 붙잡혀 온다. 이때 주교님은 장발잔을 옹호해서 "그는 도둑이 아니요, 나는 그에게 은수지와 것가락 뿐만 아니라 은춧대도 주었던 말이요" 하면서 장발잔에게 은춧대를 집어 주시며 그의 죄를 감추어 주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준다. 주교님의 사랑에 감화된 장발잔은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소외된 불쌍한 이웃을 위해 일생을 바친다. 주교님의 조건없는 사랑은 잔악한 장발잔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이것은 사랑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사랑!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지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 끝날까지 실천해야 할 사랑의 이중 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느님과 이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나의 이웃은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사람들이다. 나의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사랑의 실천은 크나 큰 용기와 희생이 전제되는 것이며(서울의 어느 본당 신자들처럼), 사랑의 실천은 나의 이웃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장발잔처럼)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살자. (무주 주임신부)



꾸르실로 운동의 새 걸음을...

근년에 들어 교회 안에는 쇄신(刷新)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며 공부하는 모습이나 갖가지 가톨릭 운동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갖가지 운동들은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하느님 안에 새로와 지고자 하는 비서 그 일치를 볼 수 있다. 가톨릭 운동들—꾸르실로, 공동체 목사회, 성령운동, M.E. 등—은 어느 것도 예외일 수 없다.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도 늘 새로와 져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세포의 형성이 멈출 때, 인간은 그 생명을 다하게 된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깊은 뜻이 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요한 3, 3)고 말씀하셨다. 사실 이는 "매일 몇번이고 자신을 환성하라"(吾日三省吾身)는 논어의 가르침과 그 맥을 같이 하면서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것이다.

오늘은 꾸르실로의 교구 울뜨레야 날이다. 울뜨레야란 꾸르실로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벌이는 우정의 잔치를 뜻한다. 교육을 받을 당시의 감격을 되살리며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며 자신을 되돌아 보는 것이다. 다른 운동과는 달리 일생에 오직 한 번 밖에 받을 수 없는지라 우정의 잔치가 지니는 의미는 참으로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교구에 꾸르실로 운동이 도입된 지 벌써 15년이 지났고, 그간 배출된 꾸르실리스타(꾸르실로 교육 수료생)만도 1천7백명이 넘는다. 그리고 이 운동이 해년 공과도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3백년대를 향한 한국 가톨릭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아직도 태산같다. 2백주년을 맞는 이때에 울뜨레야를 갖는 이들에게 「봉사자」로서의 사명에 더욱 성실하기를 비는 마음을 보낸다.

숲정이 산책



해방은 천주교의 근본이다.

해방신학 훈령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해방신학」이라는 하나의 신학적 사목적 운동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대두되어 특히 제 3세계에서 새로운 신학사상으로 발전되어 왔다. 「해방」은 그리스도교의 근본 주제이다. 그리고 빈곤과 억압 아래서 해방을 향한 민중의 열망이 고조된 상황에서 교회는 본래 죄로부터 생겨나는 불의와 사회악의 제문제에 응답해 왔다. 교회는 구원의 신비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과 그 권리를 수호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성령 신앙교리성서에서는 「해방신학의 일부 측면에 관한 훈령」을 발표하였다.

이 훈령은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진리, 인간에 관한 진리, 교회에 관한 진리를 진정한 해방신학의 토대라고 밝히고 구원·참된 진리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또한 이 훈령은 모든 인간의 해방, 그 전인적인 해방을 위해 투신해야 하는 교회 본연의 영신적 윤리적 전망을 강조하고 있다. 성서와 교의를 순전히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과 마르크스의 무신자들을 혼동하며, 폭력적인 계급투쟁으로써 진정한 개혁을 지체시키는 것은 교회의 정통 신앙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최우선의 선택은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구원을 전하는 교회 본연의 사목적 과업이다.

이 훈령이 복음정신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대한 거부로 받아들여져서는 결코 아니며 인간의 비참과 불의를 보고서도 냉담하고 무관심한 자들의 변명을 위한 구실로 삼아서는 안된다.

(이상은 신앙교리성서가 발표한 「해방신학의 일부 측면에 관한 훈령」에 대하여 주교단의 성명서를 요약한 것이다.)

※ 「해방신학의 일부 측면에 관한 훈령」은 다음 부분으로 되어 있다.

머리말

- I 하나의 열망
- II 열망의 표현
- III 해방, 그리스도교의 주제
- IV 성서적 근거
- V 교도권의 목소리
- VI 그리스도교의 새로운 해석
- VII 마르크스주의 분석
- VIII 진리와 폭력의 의미 전도
- IX 신학적 적용
- X 새로운 해석학
- XI 방향 설정
- 결 론

꿀 값

이 세상의 온갖 것은 모두 제 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꿀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꿀은 바로 인간꿀이다. 하느님께서 당신 모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인간꿀에 비교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섹스피어는 비운의 왕자 「햄릿」을 통해 인간꿀을 이렇게 찬미했다. “이 인간, 천지창조의 오묘, 그 단정한 자태에다 감탄할, 움직임, 그 이해력은 천사같으니, 세상의 꽃이요, 만물의 영장이로다.”

그런데 이같이 인간의 꿀값을 높이 평가한 햄릿이 다음 순간에 가서는 왜 인간꿀이 보기 싫다고 하였으며 왜 추잡한 구더기와 한날 먼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는가?

왕후가 시동생과 결탁하여 남편을 죽이고, 시동생이 형수와 결탁하여 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는 꿀, 이런 꿀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을 제 값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 인간이 제 꿀에 합당한 값을 못할 때 그 꿀은 말이 아니다.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문제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서로 서로 가슴을 치며 꿀값의 정도를 확인하고 저마다 제 꿀값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정치인들이 국가의 살림과 국민의 복지에 관심 없고 권익다툼에만 급급하다고 가정해 보자. 그 나라의 꿀이 무엇이 되겠는가. 교육자들이 신념있는 인간 교육을 하기보다는 지식의 소매상인 노릇에 불과하다고 가정해 보자. 그 나라 국민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가겠는가. 종교인들이 경천애인(敬天愛人)의 사상적 태도 위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뒤로 미룬다면 그 나라 국민들의 호수인 정신생활은 무엇이 되겠는가.

하기야 생색내지 않고 숨어서 끝없는 인내와 헌신으로 진정 제값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이 있음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의 후예들이 햄릿과 같이 통곡하고 실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다가오는 날들에는 각계 각층에서 저마다 제 꿀값을 다하기를 노력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사이에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깃들도록.

☘ 영화 「소명」 안내

한국 천주교회 창립의 주역인물인 이벽의 생애를 영화화한 「소명」은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을 키워왔는지를 생생하게 느끼게 해 줄 것이다.

교구 홍보국에서는 본당을 순회하며 상영하고 있으며 신청을 받고 있다.

☘ 영화 상영료(교통비 포함)

도시본당(전주, 군산, 이리, 정주, 남원) 8만원
그외본당 4만원

이리 최윤경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주·야간 수시모집
신부화장, 드레스, 폐백복 제공
미국, 불란서를 비롯 구라파 여러나라에서
교육을 마치고 귀국한

원장 최윤경(유리안나) 직접 지도합니다.

☎ 이리 2-8653 3-2496

- 훈수(회갑) 옷감 | 도매상
- 특수 파티복 |
- 고급 침구류 |
- 각종 솜 일체 |
- 커벤지 |

서울주단

☎ ③0453 ⑤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길(안토니오)
박(베로니카)

최추질환·내장질환
단식상담 환영

회원모집

요가 단식

요가수련 : 오전 6시 30분
10시, 오후 3시
시술 : 수시 상담 환영
단식 : 수시 상담 환영
☎ 김제 4050

이 땅에 빛을



한국천주교회
200주년기념

(경) 농민신앙대회 (축)

“사랑으로 하나 되자”

농민 신앙대회는 예수께서 소망하고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라는 나
눔과 섬김의 판이 될 것입니다. 이 판에 모두를 초대합니다. 부디
많이 참석하시어 하느님 믿음으로 하나된 사랑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살아있는 기도를 함께 올립니다.

일 시 : 11월 11일 오전 11시~오후 4시
장 소 : 전주 해성학교(윤정이)
참가대상 : 교구내 신자 및 농민들
주 최 : 천주교 전주교구
주 관 : 천주교 전주교구 농민사목위원회

농민은 곡식이 자라는 것을 옆에서 거두고, 도와서 그중 얼마간을 보상으로 얻어 농
사를 짓든, 다른 것을 짓든 모든 이웃들과 나누어 먹음으로써 그 이웃들의 생명을 넓히
며 세상 온갖 생명을 그 본성대로 살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농민은 이렇게 해서 생
명이신 하느님의 진리대로 자신의 삶을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농민은 곡식을 끊어내는 약탈꾼으로, 이웃에게 곡식을 팔아먹는 장사꾼으로,
세상 온갖 생명을 죽이는 마귀의 심부름꾼으로, 그렇게 해서도 제 쌀값, 제 품값을 제
대로 못받고 노상 구박당하는, 도깨비 같은 이상스런 도시생활이라는 물건을 쳐다보기
만 하고 그렇게 살 힘은 없는 실속없는 흉내꾼으로 돼 버렸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길을 잃어버리고 날이 갈수록 생명이신 하느님의 진
리와는 멀고 멀어져 낯선 뒷골목으로 자꾸만 흘러가는 사람이 오늘의 농민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누구와 무엇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
떻게 판을 벌여야 하는가?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정 호경) - 새 삶의 질감이 중에서〉

❁ 교회 간행물을 읽읍시다

교회 간행물은 우리 모두가 키워나가야 합니다. 교구 홍보국에서는 「가톨릭 신문」
「경향잡지」 「생활성서」 보급소를 두고 일체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 ☆ 전화나 서신으로 언제나 구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대금지불은 직접 홍보국이나, 우편대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400010-31-9026907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천주교 전주 교구청 홍보국(☎ 0041~3)

□ 테클라 모임

테클라 모임은 주님께 자신을 바치고 구원의 말씀을 모든 이에게 전하고 싶다는 뜻을
가진 여성들을 위한 성소모임입니다.

사회 홍보수단을 통한 복음전파에 자신이 지닌 자질을 쏟아 부으며 봉헌하고자 하시
는 분들은 모임에 참석하시어 기도와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1월 4일 오후 2시(매달 첫 일요일)
장 소 : 전주시 서노송동 639-3 성바오로 서원(☎ 3398)

요심이 (586) 김병오



특수자연시 컴퓨터를 설치한

보안당 썬타

가볍고, 얇고, 원근조절 렌즈,
김 안서리는 렌즈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족시켜 드리겠
습니다.
전주구역전오거리 ☎ 3-3032

신속배달 설비시설

한국 가스 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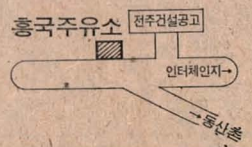
☎ 3-1457·72-0612

김 성 두(토마스)
이 미 자(압켈라)

유공 흥국상사 흥국주유소

(휘발유, 경유, 석유) 품질보증 · 정량신속배달

전주시 팔복동 삼거리
☎ ③ 1193 · ⑤ 5501
장 마리오
김 테레사



학원생 수시 모집(주·야)
철저한 개인지도

V. T. R로 산 교육화

현대 미용학원

전주시서노송동(중앙성당앞)
원장 : 김 테레사(금순)
☎ ④ 9206 · ⑤ 5289

日式 산생선
조용하고 안락한 휴식처

금강회집

이 로사(향훈)
군산시 금동 1-77
(도선장 옆)
전 화 ③ 7706 · 7719



1. 교구 혼인법령 : 29일 오전 10시, 장소-교구청
2. 시민강좌 : 30일 오후 8시, 장소-전주 중앙성당, 연제-한·일간의 경제문제, 연사-박헌채 교수
3. 10월 은혜의 밤 및 철야기도회 : 31일 오후 7시 30분, 장소-효자동성당, 대상-성령세미나 받으신 분들
4. 사목방문 : 31일-무주-장계분당
5. 푸른군대 특별 피정 : 11월 1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노송동성당
6. '84 제10차 레지오 간부 연수회 : 11월 4일 오전 9시~오후 5시, 장소-센타, 대상-레지오 마리오 간부 및 후보자
7. 사도회장 및 단체장 모임 : 11월 4일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가톨릭센타 회의실, 대상-분당 사도회장 및 교구단위 사도직 단체장
8. 제4지구 교리교사 월례회 : 11월 4일 오후 2시, 장소-수류분당
9. 제17차 어린이양들의 모후 소년 꾸리아 회의 : 11월 4일 오후 2시, 장소-(전주지구) 전동성당·(이리지구) 창인동성당, 대상-각 Pr. 간부

제 1 지구 각 분당 소식 ①

(중앙)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윤성철
사도 회장 김인철
전화 ①7111~3

1. 유아세례 : 11월 2일, 어머니미사 후
2. 방저거 3회 : 금일 오후 2시
3. 북자반 첫고백 : 11월 3일 오후 8시
4. 사도회 : 11월 4일 공식미사 후
5. 혼인상담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6시 (세례증명서·호적등본 각 1통) 1개월전에 분당신부와 변담하세요
6. 각 신심단체 11월 계획서 : 30일까지 제출요
7. 교적에 주소 전화번호 틀리시는 분 사무실에 신청
8. 방자봉성제 : 6일, 9. 성심부녀회 : 2일, 어머니미사후
- 지난주 봉헌금 : 932, 872원 교무금 : 956, 300원 감사헌금 : 익명 30, 000원

(노송동)

주임 신부 김태우
보좌 신부 이성재
사도 회장 이홍재
전화 ①0969
수.사 ②7032

1. 신축기금 신입합사 : 최승호-20만원, 형성희·송양숙-각 15만원, 채순복-5만4천원, 조정일-7만원, 조예수·박정옥·임명순-각 3만원, 박일순·김진석·김귀례·강기대·김복남·유원순-각 2만원, 김금례-2만5천원, 김정순-1만5천원, 소계-874, 000원, 누계-111, 836, 000원
2. 전례위원회 모임 : 오늘 공식미사 후
3. 구역봉사자 모임 : 31일 저녁 8시, 꼭 참석합니다
4. 공소회장단 모임 : 31일 오후 3시, 다리의 공소에서 분당 성가대의 성지순례 관계로 연기합니다
5. 어머니성가대 성지순례 : 30일
6. 아파트 요절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7. 아파트 이신부님 교리반 변경 : 미사전 9시
8. 로사리오의 밤 : 31일 저녁미사 후
9. 열제자 모임 : 11월 11일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391, 120원 아파트 : 115, 550원
지난주 교무금 : 450, 500원 아파트 : 251, 000원

(덕진)

주임 신부 김동환
보좌 신부 김요안
사무 (72) 6259 사도 회장 양상열
전화 신부 (3) 2182 주임 신부 김동환
수녀 (72) 1222 보좌 신부 김요안
사무 (72) 6259 사도 회장 양상열

1. 오늘의 모임 : 전복회 (공소회장·단체장·구역장님 및 반장님 사도회원원 까리마쓰회 30일 오후 2시, 성심부녀회 31일 10시)
2. 유아세례·보례 : 오늘 대부분님 모시고 3시까지 신청
3. 본당의 날 행사안내 : ①전전대상자 오늘까지 사무실에 신청 28~31일 저녁 7시 특별교리, ②3천 대가족 잔치가 되도록 모두 적극 협력합니다, ③미사도구·점심 지원하고 교회국민학교로 9시 30분까지 집합 ④망일 행사를 위하여 경품 기증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4. 활자봉성제 : 11월 1일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준비바람
5. 구역장·반장님 피정 :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후 2시
6. 금주 분당청소 : 중·고학생회 오후 3시
7. 회의 연기 : 11월 4일 회합은 다음주로 연기
8. 11월 4일 당일 분당미사는 본당의 날 행사로 없습니다 : 10시 미사만 덕진국민학교에서
- 지난주 봉헌금 : 543, 200원 교무금 : 630, 000원 특별헌금 : 153, 200원

(복자)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김성원
사.제관 75-0592 주임 신부 권영균
사.수 2-5238 사도 회장 김성원

1. 사도회 : 오늘 저녁미사 후
2. 첫침례 7 : 11월 3일 저녁 7시 30분
3. 부녀회 : 11월 3일 오전 10시

4. 성당 은풍기(히타) 설치 헌금 : 권신부님-10만원, 익명-30만원 감사합니다
5. 가정방문 : 11월 1일
6. 결혼 : 28일 12시, 신랑-최승민, 신부-윤정수
7. 빈센시오회원 교육 : 29일 오전 10시, 김영신 신부님
8. 차주 성당청소 : 월-사도의 모후, 토-자비의 모후
9. 차주전례 : 해설-최정순, 독서-①정동민 ②조성호
- 지난주 봉헌금 : 132, 585원 교무금 : 462, 560원 전교주일 헌금 : 66, 955원

(서학동)

주임 신부 김동준
수녀 ②2276번 사도 회장 김낙균

1. 모임 : 사도회 월례회-11월 1일 오후 7시 30분, 자모회-11월 6일 오전 10시 30분
2. 성전 보수공사 헌금 :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3. 예비자 모집 : 등록 바랍니다
4. 다음주 전례 : 해설-신영창·문미옥, 독서-①함문권 ②차상원, 기도-하늘의 문Pr.
- 지난주 봉헌금 : 321, 570원 교무금 : 401, 000원

(숲정리)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②9567 사도 회장 김수겸
전화 ①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②9567 사도 회장 김수겸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애령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3. 예비자교리 : 다음주부터
4. 미사시간 변경 : 29일부터, 저녁미사-오후 6시 30분 중·고생, 학생미사-토요일 오후 6시
5. 가정방문 : 시간 오후 2시~5시까지, 오후 7~10시까지, 11월 6일-서신1구역, 7일-서신2구역, 8일-서신3구역, 9일-서신4구역
6. 차주전례 : 해설-이귀례, 기도·독서-이동현·이정수
- 지난주 봉헌금 : 247, 795원 교무금 : 487, 000원 전교주일헌금 : 104, 210원

(전동)

주임 신부 김치삼
보좌 신부 정양현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김병오
전화 신부 ②6208 주임 신부 김치삼
사무 ②3222 보좌 신부 정양현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김병오

1. 글라라 혈제회 : 오늘 오후 1시 30분
2. 사도회·유아세례 : 다음주
3. 성령기도회 : 매주 효자동 성당에서
4. 추계 가정방문 일정 : 30일·31일·11월 2일·3일-동교동·서교동, 6·7·9·10일-동완산동·서완산동, 13·14·16·17일-풍납동, 20·21·23·24일-중앙동·경원동·다가동·남노송동, 27·28·30일 12월 1일-전동·기타동
5. 200주년 기념사업 선금 : 15만원-유기동, 5만원-서영봉·이덕우·조지영·이귀남·석란수·송창진·김덕연, 10만원-김남수·김주영·홍정순·법창규·이준영, 3만원-홍옥자·박순성, 2만원-이용석·신철규·천은희, 1만원-이양희·한일진·주양근·이동수·신순희·이창수 5천원-김보순
- 지난주 봉헌금 : 900, 720원 교무금 : 618, 000원

(효자동)

주임 신부 박중신
사도회장 이교성
신부 75-3841 주임 신부 박중신
수녀 2-4804 사도회장 이교성
사무 2-0915

1. 성지순례 : 11월 5일, 미리내→꽃동네 자모회·글라라회·성모회, 퇴비-4천원
2. 은혜의 밤 및 철야기도 : 31일 오후 7시 30분
3. 성물판매소 : 사무실로 이전
4. 성모기사회 : 11월 3일 오후 2시
5. 사목회의 : 다음주 공식미사 후
6. 꾸리아 : 11월 4일 오전 9시 7. 유아세례 : 오늘 10시